개항 10개월 무안공항 활성화 어떻게

국제선 中 집중 탈피, 日·동남아 확대를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도 시급한 과제

군산공항 경제성 없어 건설 백지화 바람직

개항 10개월을 맞은 무안 국제공항은 '정기 국제선 6편, 하루 평균 이용객 500명'이라는 성적표로 간신히 국제공항으로서 체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유가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도 힘든 상황이어서 서남권 허브 공항을 표방한 무안 국제공항의 앞길은 험난한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의 군산 국제공항 건설 추진 방침은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안국제공항 실상=무안 국제공항은 지난 해 11월 호남권 거점공항으로 문을 열었다. 당초 정기 국제선 4편으로 개항한 이후, 지난 5월 28일 광주~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등으로 개항 반년 만에 정기 국제선이 13편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부정기선을 포함하면 국제선이 최고 19편까지 운항한 적도 있어 국제공항으로서 조기안착이 무난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잘 나가던 무안 국제공항은 고유가라는 암초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로 인해 7, 8월 2개월 동안 정기 국제선이 13편에서 6편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기선 노선이 모두 중국에 집중돼 있는 관계로 쓰촨성 지진사태와 중국 AI발생, 올림픽 기간 중 체류비 폭등에 따른 여행객 감소 등도 악재로 작용했다.

◇군산 국제공항 타당성 있나=항공사 및 여행업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군산 국제공항의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항공사의 관계자는 "3년전 강릉공항과 속초공항을 합쳐 국내 동북부 거점공항으로 개항한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의 경우 국제선이 안 뜬지 오래다"면서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 국제공항도 유가의 영향으로 힘든 마당에 군산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시장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공항의 유지를 위해서는 탑승객 수요가 가장 중요한 데 군산 국제공항은 군산을 비롯해 전주, 익산, 김제 등 배후도시를 모두 합해도 인구가 100만 명 밖에 되지 않아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수요가 없을 경우 항공사들이 국제선을 띄울 수 없어 기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국제공항 건설은 정치적 이해나 정책적 배려의 산물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향후 과제=무안 국제공항은 정기 국제선이 6편으로 줄어드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항 1년이 못된 점과 고유가를 감안하면 기본은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향후 중국에 집중돼 있는 국제선을 일본과 동남아로 확대하는 한편 고유가시대에 맞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도 절실한 과제다.

정부도 정치 논리가 아니라 서남권에 두 개의 국제공항이 필요한 지, 타당성이 있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 여행사, 학계 등 관련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오는 30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라면서 "군산 국제공항 건설 여부는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외부압력 철저 배제 … 독립성 지킬 터"

4년 임기 시작 김황식 감사원장

김황식 감사원장이 8일 오전 감사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황식 감사원장이 8일 취임식과 함께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장성이 고향인 김황식 원장은 역대 감사원장 가운데 이한기(전북), 한승헌(전북), 전윤철 원장(전남)에 이어 네 번째 호남 출신이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식을 가졌으며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을 예방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김 원장은 지난 7·7 개각에서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무사히 통과해 업무를 시작하게 됐지만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선 감사원의 위상 및 공신력 제고가 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KBS 및 공공기관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으로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쇠고기 협상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이달 중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쇠고기 고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는 각하될 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김 원장은 야당의 파상 공세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김 원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국가에 대한 봉사라는 생각에 국가의 부름에 따르기로 결단했다"며 소감을 피력한 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역사와 전통, 명예를 지켜온 감사원의 수장이 되니 무거운 책임감 앞에 두렵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 절차에서 권위주의적 요소 배제, 피감기관의 정확한 의견 반영,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 등 감사절차의 민주화를 당부하면서 "감사원 핵심가치인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재임 중 외부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호남서 여당 역할 방안 논의

한나라 광주시·전남도당 워크숍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8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도당 회의실에서 당협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한나라당 광주, 전남·북 지역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나라당이 불모지인 호남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8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도당 회의실에서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한나라당 광주, 전남·북 지역 당협위원장 워크숍'을 갖고 호남지역에서의 여당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당협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이날 한나라당의 호남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보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중앙 정부에 지역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종훈 홍익대 법대 교수는 '국회 입법활동의 이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한나라당의 호남지역 영향력 확대 방안과 관련, "당협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정기 국회 및 국정 감사 등 국회 입법 활동을 파악, 지역 현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국정 감사에서 다룰 해당 지역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달희 울산대 교수도 지역 위원장들의 역할에 대해 "호남지역에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만큼 집권 여당의 이미지를 높이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당협위원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각 시·군·구의 주요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살피지 못한 '틈새'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당협위원장들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현안을 챙기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중앙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박주선 "두차례 구속 盧 전 대통령이 유감 표명"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8일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참여정부 시절 자신이 두 차례 구속됐던 사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감 표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7월11일 지도부의 일원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대화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노 전 대통령에게 '참여정부에서 두 번이나 억울하게 구속돼 무죄를 받았는데 수사검사들이 오히려 영전·승진하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았다'고 말하자 노 전 대통령은 '분당하는 과정에서의 아픔인데 민주당과 박 의원과는 별개로 됐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결국 분당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있었고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한 인사는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할 때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없어서 박 의원이 고통을 겪은 것은 미안하지만 내가 누구를 찍어 표적수사를 하게 한 적은 없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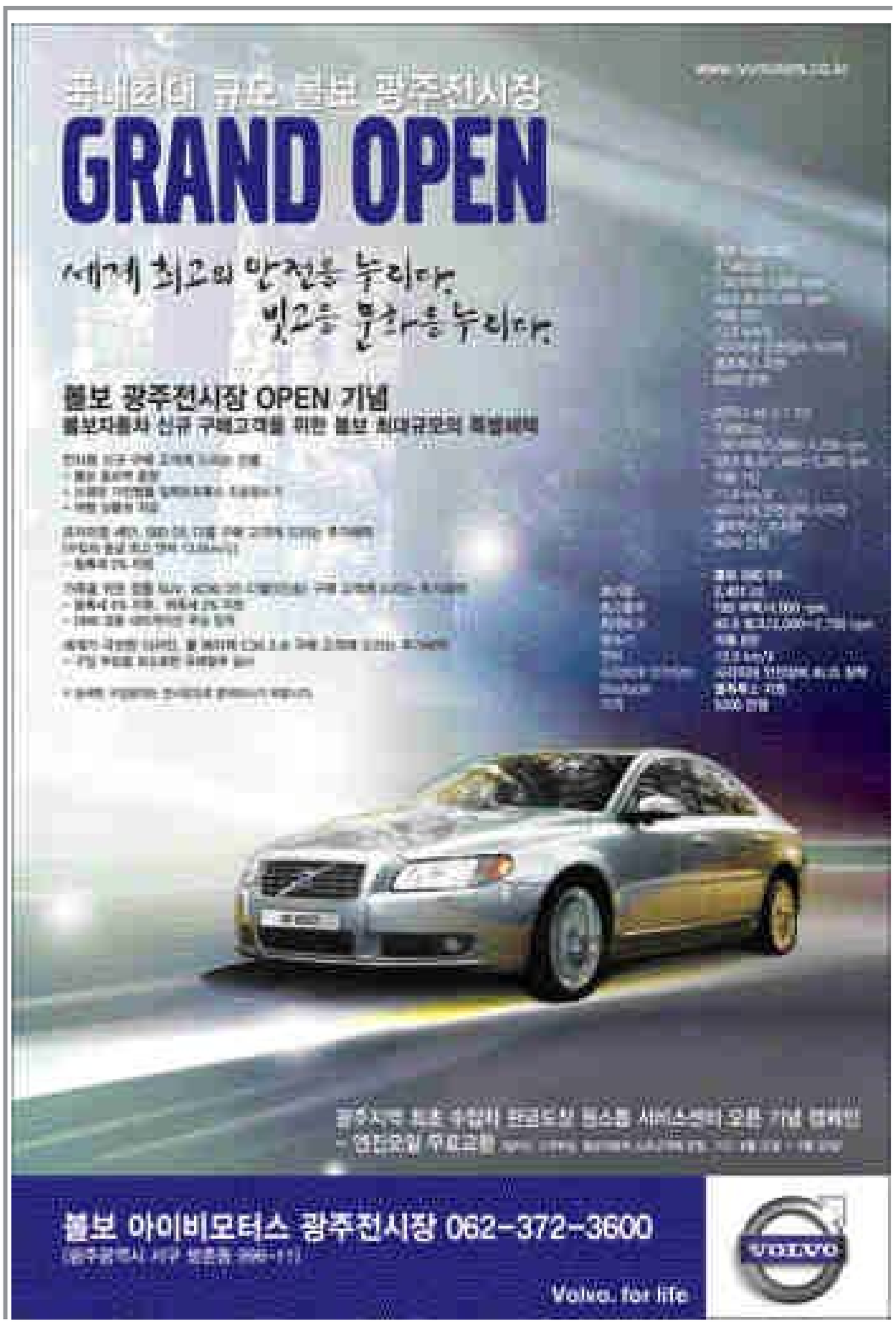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 2010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 시사

주승용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 당의 통합과 화합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남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010년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8일 전남도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호남 제 1당의 도당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2010년 도지사 출마설에 대해서는 "아직 지방선거가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정치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우선은 도당의 화합과 전남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로부터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나 "정치인들에게는 누구나 꿈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해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전 박준영 도지사와 만난 자리에 대해선 "(도지사 출마관련) 항간의 소문이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어 오해를 푸는 자리를 가졌다"며 "앞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머리를 맞대 전남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